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강홍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AMC 내일 저녁 6시에 팡파르를 울린다

환영사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90아시아선교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는 우리 모두가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0억 아시아인의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정책 수립과 선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공동 목표 지향을 위한 협력과 연합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자연의 비신격화, 정치의 비성역화, 모든 가치의 탈신성화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선교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불편없이 대회를 마치기까지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0. 8.

이종윤 목사

Welcoming Address

It is a real joy and privilege for m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each one of you who is participating in the Asian Missions Congress '90 in Korea which aims to evangelize the rapidly changing vast continent of Asia with the Gospel of Christ.

I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this Congress would provide ample opportunities for us to establish effective mission strategies, to reevaluate problems of modern missions in Asia, and to foster a new cooperation among Christians in order to evangelize 3.0 billion Asians (who represent approximately 60% of the total world population) with the Gospel.

I trust that the Lord will use this occasion for us to evaluate the increasing ungodly degradation both of mankind and of political justice in our modern world as well as the loss our God-given sense of individual value. Furthermore, I hope that this Congress will stimulate the Asian church to participate not only in the evangelization of Asia but of the whole world.

I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this Congress will conclude in God's grace without any inconvenience or difficulty and that God will bless our time together here.

Yours in Christ,

Lee Jong-Yun, Ph.D.
Arrangement .
Hospitality Chairman

'90아시아선교대회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는 내일 오후 6시에 개최하여,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비롯하여 성경 강해, 주제 강연과 워크숍, 그리고 선교 보고, 선교 헌신, 선교 대회를 갖는다.

을 위해 협력과 연합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AMC 준비위원회는 서울신탁
은행의 협조로 소석관 102호에
환전소를, 소석관 앞에 이동우체
국을 연다.

모든 강의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

신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리 중현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90아시아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어제부터 9월 2일까지 전개되는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동'에 적극 참여해야

성도들은 기도로 지원토록

이 선교대회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속사도행전운동으로, 충현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됨)를 이준용 위임목사가 인도하며, 마지막날 있을 성찬식을 김창인 원로목사가 집례한다. 특히 선교를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을 55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대규모의 워크숍과 주제 강연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하여 30억 아시아인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선교 정책을 수립하며, 공동 목표 지향

어 등 5개 국어로 동시 통역된다. 동시 통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당 의자에 부착된 기계를 이용하면 되고, 특히 한국어, 일어, 영어는 휴대용 FM 수신 라디오의 주 파수 (한국어·영어: FM 108MHz, 일어: FM 76~90MHz)를 맞추면 동시 통역을 들을 수 있다.

아시아 복음화나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몇몇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평신도들의 피눈물나는 기도과 헌

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기도로서 이 선교대회를 후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흥해작전에서 저들 기도의 대 역사를 아시아와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사랑의 전화 걸기 등으로 이 사도행전운동에의 참여를 서로서로 권면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는 '90아시아선교대회의 각종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TIME	8.27 MON	8.28 TUE	8.29 WED	8.30 THU	8.31 FRI
5:00~6:00	도 착 및 등 록	새벽기도회 (아중운박사)		DAWN PRAYER - Dr. Lee Jong Yun	
6:00~7:00		개인경건의시간		PERSONAL DEVOTIONS	
7:00~8:45		아침식사		BREAKFAST	
9:00~10:00		성경강해 BIBLE EXPOSITION			
		구역성경(O.T.) Dr. Chris Marantika		신약성경(N.T.) Dr. Theodore Williams	
10:00~11:00	ARRIVAL	주제강연 PLENARY SESSIONS			
	&	Historical Analysis of Mission in Asia 로봉린박사(Dr. Bong Rin Ro)	Missions: 과선의 Task of the Church 박사(Dr. Kwak Sun Hee)	Church & Missions Relationship Rev. Jun Vencer	Issues and Trends in Missions Dr. Met Castillo
11:00~11:30	R E G I S T R A T I O N	휴식 TEA BREAK			
11:30~12:30		주제강연 PLENARY SESSION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김명혁박사 (Dr. Kim Myung Hyuk)
12:30~1:30		Unreached Peoples Research Committee Rev. Howard Peskett	Mission Strategy Dr. James Taylor	Emerging Missions and World Evangelization Dr. Larry Keyes	
1:30~2:30		점심 LUNCH	나라별 점심 및 전략모임 Lunch & National Strategy Meetings		나라별 점심 및 전략모임 Lunch & National Strategy Meetings
2:30~3:45		휴식 REST			
3:45~4:15		워크샵 I (WORKSHOP I)		점심 및 관광 LUNCH / TOUR	전략회의 보고 National Strategy Reports
4:15~5:30	차별식사 (Dinner) 4:30~6:00	워크샵 2 (WORKSHOP 2)			AMC 대회 보고 AMC Declaration Committee Reports
5:30~7:00	Opening Ceremony 6:00~7:00	저녁식사 DINNER			
7:00~9:00	개회예배 Opening Worship Chairman: Dr. Met Castillo Greeting: Rev. Kim Joon-Kon Speaker: Dr. Theodore Williams	선교보고 MISSIONARY REPORTS			선교헌신 Challenge Dr. John Richard
		Asia Missionary	Africa / Europe Missionary	Latin America Missionary	
		선교대회 INSPIRATIONAL SERVICES			성찬식 COMMUNION Speaker: Rev. Kim Chang-In
		Speaker: Dr. Joshua Tsutada	Speaker: Dr. Petrus Octavianus	Speaker: Dr. Philip Teng	

성경 강해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샅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요 10:11~18)

이 중 윤 목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즉 영어의 ‘I am’, 우리 말로는 ‘나는 ~이다’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였고 1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으며,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1. 나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는 그 목자, 그 선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가 중요한 뜻을 지닙니다. 그냥 저기에 있는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의 목자 가운데, 또 그 중 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성전과 같이 외형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처럼 뜻있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의하면 집사들처럼 책임을 다하는 것을 뜻하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 양심의 선을 가리키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완전한 것을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하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또다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고 17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죽으신 것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의 도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본문의 ‘목

숨’을 ‘푸쉬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쉬케’라는 말은 목숨,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 생명을 버렸다는 뜻이지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다던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생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목자와 샅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샅꾼은 받은 보수만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희생이 없습니다. 때문에 샅꾼들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않고 샅에 있습니다. 양에게 위기가 올 때에 샅꾼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편 139편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언급되었는데,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양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문제에 당신의 양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약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우리도 그를 알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성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6절과 17절 사이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모든 나라의 교회를 세우셔서 한 우리, 그 우리 속에 우리들을 갖다 넣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스스로 행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은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받은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곧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의 죽으심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로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18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특수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대리적인 죽음이고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들도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각각 다른 양의 특성을 선한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우선 선한 목자는 신실합니다. 온갖 위험이 몰려와도 신실한 목자는 끝까지 자기 양들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부를 때에는 그분의 신실성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적당히 일하는 샅꾼과는 다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오래 참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오래 참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모범자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또한 자기를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고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단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실 뿐 아니라 회생의 제물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어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2.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여러 곳을 보면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는 선한 목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면 그는 훌륭하고 선한 목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14절에 의하면 자기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 하기 농어촌 전도보고

동성교회를 다녀와서



지난 7월 29일, 90년도 하기 농촌전도대 파송예배 때 힘차게 부르던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불타는 헌신과 봉사를 다짐한 제4전도대 동성교회 파송팀은 최인근 목사님을 지도 교역자로, 김정태 집사님을 대장으로 하여 7명의 대원이 한 팀이 되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파송교회에 보내어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랴부랴 갔지만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도착했다. 동성교회 김순구 목사님과 10여 명의 어린이, 그리고 45명의 집사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교회로 갔다. 교회는 참으로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져 있었다.

우리는 먼저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름받아 이곳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후 우리는 곧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세 개 조로 나뉘어 이도리, 기운리, 지가리로 전도를 나갔다.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선 어린이를 중심으로 초대장과 전도지를 전달하였다. 역시 성령님께서 먼저 이곳에 오셨음을 실감하였다. 먼 길을 달려온 피곤도 잊은 채 우리가 돌리는 전도지를 받아들은 어린이들은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였다.

저녁 때까지 전도를 하고 숙소로 돌아와 내일의 행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일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새벽집회가 문제였다. 그곳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아이들이 새벽예배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자는 동안 등 하고 밤을 보낸 후, 새벽예배에 참석하였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39명이나 새벽예배에 나왔다. 여름 성경학교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수보다 많은 85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조그만 사랑이 너무 큰 결과로 나타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자, 긴장은 풀렸지만 우리 일행은 전날과 같이 마을로 전도를 나갔다. 가까운 해살을 친구 삼아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전달할 때마다 어리석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우리들은 다만 전도지만을 나누어주고 가지만 성령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틀째 새벽예배에는 54명이 출석하였다. 성경학교 때에는 모두 78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오후에는 무료 약국이 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전도회 제6회 권사님들의 방문으로 그날의 전도는 더욱 힘차고 즐거웠으며, 반응도 좋았다.

수요일에 있었던 초청전도 잔치에는 86명이라는 대단한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 특히 최인근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훗날 더욱 알찬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을 하였다.

마지막날 새벽은 마음이 묘하였다. 모두들 피곤할 텐데도 일찍 기상을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새벽예배에 61명이 나왔고, 낮에는 91명이 나왔다. 이 같은 일은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다. 우리들이 가르치는 마지막 성경 공부가 어린 학생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욱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어우러져 사랑의 애잔도 나누었다. 우리는 하기 농촌전도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선생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성교회를 떠나왔다.

이번 하기 농촌전도와 동성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기도과 물질로 지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기 농어촌 전도대 300여 명 전도

지난 7월 30일 파송되었던 90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가 복음 돌아와 그 활동 내용을 보고하였고 전도의 사명을 안고 9개 농어촌 다.

파송교회	지역	대원수	결신자	특별활동
1 용산교회	강원 정선	13	41	1. 비디오 상영 2. 체육 대회
2 동성교회	강원 동해	9	35	1. 축회전도 강화 2. 성경책 사전 준비
3 대광교회	충남 안산	13	21	1. 일손 봉사 2. 다과회 실시
4 천국교회	강원 영월	17	33	1. 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필요 2. 식사준비 완벽하지 않겠
5 봉덕교회	전남 영암	22	58	1. 티셔츠선물(어린이) 2. 프라스틱물(각가정) 3. 어린이 운동회 실시
6 가곡교회	충남 부여	13	20	1. 의료봉사 성과 지대 2. 봉고차량이 필요
7 비산교회	강원 평강	15	21	1. 다과회 성과 2. 인형극 성과
8 내오리교회	경기 용인	9	21	1. 마을 각가정 화상실 소독봉사 2. 의료봉사 및 대민봉사
9 성가전도대(NMC)	부산, 마산	40	30	

노년을 전도 위해 헌신

소망부 회원들은 매일 병원, 보건의소, 시청 등을 방문하여 주간 출현 등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마리아전도회 제14지회로부터 1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병원 40개소, 보건소 8개소에 전도지를 배부했고 하반기에는 시청 22개, 구청 민원실을 개척하고 있다. 매일 행해지고 있는 이 전도를

좀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망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성도들의 차량 지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차량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교구에서 운전기사 1, 2명이 봉사해주길 원하고 있다. 소망부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소망부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교역자·장로 기도회 가져

우리 교회 교역자와 장로들은 지난 8월 20일 저녁, 충현기도원에서 정기기도회를 가졌다.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 받고 이어서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윤용규 목사의 말씀 후에 제목을 따라 기도를 드렸는데, 특히 '90아시아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속사도행전운동을 통한 성령 운동, 말씀 운동, 선교 운동



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반기에 있을 각종 행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였다.

세기등

아시아를 위하여 새벽을 하나님께



송 태 군 목사

삶은 계란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계란의 둥근 쪽을 깨서 먹어야 맛있는 것이다. 계란의 뾰족한 쪽을 깨서 먹어야 맛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전쟁을 하게까지 되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물론 이것은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 이러한 '계'를 밟을 수가 있다. 어떠한 일을 몰두해서 추진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본질적인 것만 지엽적인 것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 지엽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매달리기 쉬운 것이다.

계란이란 특이한 모양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느 쪽을 깨서 먹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제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가온 '90아시아 선교대회의 모든 준비와 방향을 점검해보자.

이 대회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객이 바뀐 부분은 없는지를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야 한다.

작년 7월에 대환했던 풀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목사는 한국 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원인은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도는 한국 최고의 수출품이다."라고까지 극찬을 했다. 그렇다! 우리의 마지막 준비의 본론은 "기도"이다.

이번 '90아시아선교대회를 맞으면서 우리가 100여 년 동안 갖지 못한 '사랑의 빛'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분과별로 준비, 점검, 봉사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자서는 무엇 보더라도 대회기간 중 진행되는 속사도행전운동을 통해서 새벽마다 아시아의 죽어가는 영혼들

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책임질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빚진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설혹 재정이 모자랄지언정 기도에 쏠려서는 안된다. 한 교회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기도요, 한 교회의 수준은 결코 기도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한다.

한 교회가 이런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실력과 역량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세력이요, 역량이라고 평가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3 차에 걸쳐 승리케 하신 홍해작전의 감격과 은혜가 강령으로 새겨져 있지 않은가.

늦은 밤까지 모두들 불을 밝히며, 최고의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이제는 이 대회에 임하는 모든 출현의 성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아시아 대륙에 불을 밝히고 길을 내는 일에 동참하자.

아시아를 위하여 새벽을 하나님께!

다음호 세기등은 김태균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90아시아선교대회 국내외 강사

'90아시아선교대회에는 대회 자체의 규모 못지 않게 주제 강연, 선교 대회, 워크숍의 강사들도 국내외 유수의 신학자, 교회 지도자, 선교사들로 되어 있다. 아래에 실린 강사들 외에도 필립 탕 박사(30일 선교대회), 하워드 페스케트 박사(28일 주제 강연), 레리 케예스 박사(30일 주제 강연)를 비롯하여 모두 60여 명의 강사들이 이 선교대회를 위하여 수고하게 된다.

사(30일 선교대회), 하워드 페스케트 박사(28일 주제 강연), 레리 케예스 박사(30일 주제 강연)를 비롯하여 모두 60여 명의 강사들이 이 선교대회를 위하여 수고하게 된다.



Dr. Theodore Williams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WEF) 회장
인도선교 협의회 총무



Dr. Joshua Tsurada
아시아 복음주의
협의회(EFA) 회장
일본 임마누엘 성경대학 교장



Rev. Dr. John Richard
아시아 복음주의 협의회
(EFA) 전임총부



Dr. Petrus Octavianus
인도네시아 선교협의회
(IMF) 회장



Dr. Chris Marantika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교 교장



Rev. Agustin Vencer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Dr. Met Castillo
필리핀 선교협의회
총무



Dr. James Taylor
OMF 총재



Alfred Yeo
아시아 복음주의
협의회 총무
싱가포르 복음주의협의회 총무



Thomas Wang
21세기를 향한 세계
복음화 운동 총재



김창인 목사
충현교회 원로목사
KEF 자문위원



김준근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CCC 총재



박선회 목사
소망교회 담임목사
동반자선교협의회 회장



이종운 목사
충현교회 담임목사
KEF 국제분과 위원장



로봉린 목사
WEF 신학분과
위원회 총무
AGST 원장



김명혁 목사
KEF 총무
함동신학교 교장

9월 8일 성경연구원 90년도 제2학기 개강

충현교회 성도들이 천국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경연구원 90년도 제2학기 강좌가 9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주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9월 8일(토) 저녁 7시에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주간성경공부(크로스웨이, 호세아, 아담반, 갈라디아서, 에스더, 아모스, 최선의 삶, 디모테전서)와 제3기 교사양성부에 성도들의 많은 수강을 바란다.

사랑부 새 찬송가 부르기 대회 열어

사랑부는 지난 8월 19일 주일 저녁 12시에 새로 배운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 때는 그 동안 배운 십계명 각반별로 진행된 이번 찬송가 부르기 대회는 사랑부 학생들이

기도운동으로 부흥 꾀하는 대학부

대학부는 요즘 매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다. 대학부 부감인 정홍식 집사와 면려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기도회는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하여 일어난 기도의 불길이 더욱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도회에서는 수험생과 대학부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부와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 또한 대학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회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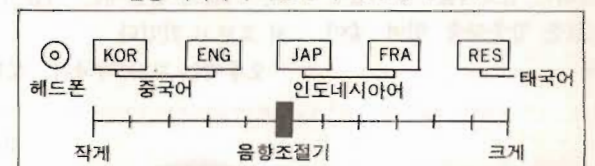
이종운 위임목사 기독교방송과 인터뷰

'90아시아선교대회를 앞두고 이종운 위임목사는 9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기독교방송의 "C BS 초대석"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가졌다. 위임목사는 인터뷰에

AMC 저녁 집회 참가자는 라디오 지참

'90아시아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중국어, 일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도 동시 통역을 하기로 하였다. 집회 참석 시 FM 수신 라디오와 이어폰을 지참하면 원하는 언어로 강의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본당 의자에 부착된 동시 통역 선택 버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과 세례

성경: 골로새서 2:11, 12

요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찬송: 351, 399

제93문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제94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제95문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유형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유형 교회의 유아(성도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설명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하였다는 의미인데, 세례의 조건으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 그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그 고백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막 16:15, 16)?
-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보시오(골 3:12; 롬 6:3, 4).
-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마 28:19)?